

#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거듭 요구...미군주둔 강조

“日 95%, 中 90%, 韓 35% 호르무즈 통해 원유 수입”  
“우리와 함께 참여하길 강력 권고...‘열의’ 수준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의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은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

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이라고 언급해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일부 나라로부터) 좋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나라들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떤 나라들인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했다면서 “영국이 관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맞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스설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와 미군 주둔 등 미국의 안보 기여 수혜 정도 등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둘 모두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 등이 파병에 대한 미측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17일째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우리 측 사람들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 한쪽 다리를 잃고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쿠바 “국가 전력시스템 완전 단절”...트럼프 “쿠바 접수 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속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의 전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에너지광산부는 엑스(X·구트위

터)를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바 국영전력청(UNE)도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끊겼으며 이는 “국가전력망의 완전한 기능

중단”에 따라 발생했고, 현재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100만명에 이르는 쿠바 국민들은 전력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전사태는 수 시간에서 며칠씩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정전사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삼 전제에 석유 공급이 3개월 넘게 끊긴 상태이며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소만 전력을 가동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에너지난에 따른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공산당 당사에 불을 지르는 반정부 시위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산당이 군림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당사를 공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전력난이 악화하자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정

부가 미국 정부와 대화에 나섰다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회담의 목적이 “심각성과 파급력이 큰 양국 간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쿠바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